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발사대 중요해!

지난 해 남북 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대통령ی 방북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위태롭던 한반도에 다소나마 긴장이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신 발사대 몇 곳을 파괴했다. 사람들은 발사대만 파괴하는 것으로 미흡하다고, 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 말이 맞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발사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발사대가 없으면 공격형 무기가 될 수 없다. 핵이 무서운 것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미사일에 얹혀 발사대에서 쏘 경우 상대방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러니 발사대 없는 핵무기는 총이 없는 총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발사대와 같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핵무기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것은 핵 탑재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아 마귀와 귀신들이 혼비백산하며 떠날 수밖에 없다.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발사대가 없는 핵무기 꼴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8:36)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내가 잠시 해외집회를 나가지 않은 것은 발사대인 몸을 돌보기 위함이었다. 발사대인 몸이 망가지면 성령의 능력도 사장될 수 있기에 휴식기를 가진 것이다. 많은 주의 종들이 과로로 인하여 펍펍 쓰러지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건강을 잘 돌보아야 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므로 과로, 과욕을 버리고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9년,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야망도, 희망도, 꿈도, 계획도 쏠아 올릴 수 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할 때 보약도 챙겨 육체를 잘 돌보자. 체력이 영력이다!

영적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라

누가 저분의 열정을 당할 수 있을까? 누가 저분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7시간에 걸쳐 사자후 같은 설교를 토해내셨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는지, 왜 하나님이 저분을 믿고 쓰시는지 깨달았고, 그 모습 자체로도 충분한 교육이 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덕목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주셨다.

“첫째, 지도자는 썩은 것을 방지하면 안 된다. 썩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전체를 썩게 한다. 환자에게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썩은 것이 있으면 도려내고 수술해야 한다. 썩은 것을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잘라내서 다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은 국가와 사회, 개인의 암이므로 과감히 도끼를 들어 잘라내야 발전할 수 있다. 나 자신의 혁신을 이루라. 다섯째, 인재제일주의, 능력 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 인재는 인정해줄 때 충성한다. 주의 종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히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연장을 주고 코치해주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여섯째, 조장이나 구역장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화로 없는 불처럼 위험하며, 교육부재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 인격의 질을 높이고 지식을 함양시켜야 지도할 수 있다. 100-1=0이다. 하나를 잘못하면 다 무너진다. 일곱 번째, 마르지 않는 샘은 퍼주는 샘이다. 지식의 샘이 마르지 않으려면, 계속

성도들에게 추한 것을 보이지 말고 모범을 보이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처신을 하라. 열세 번째, 이타주의가 되려면 이기주의가 되라. 내가 있어야 남을 줄 수 있다. 발사대가 있어야 핵무기를 쏘든, 미사일을 쏘든 할 것 아닌가. 먼저 내가 힘, 능력, 지혜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라. 열네 번째, 밍게 보면 다 잡초이고, 곱게 보면 다 꽃이다. 성도들을 곱게 보면 다 내 자식이요 내 부모로 보인다. 세상이 일체유심이니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하라. 열다섯 번째, 꿈과 희망과 믿음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그렇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뿐, 꿈과 희망과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자. 열여섯 번째, ‘무



일어나 빛을 발하라!(2019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

른 부위로 전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아라. 둘째, 육체의 기생충을 잡듯 삶 속에서의 기생충인 대충을 잡아야 한다. 역사의 한 맥을 그은 위대한 사람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 일을 이룬 사람들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대충을 잡아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충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셋째, 사람을 쓸 때 범을 쫓는 자가 사슴에 관심을 보이거들랑 그 사람을 쓰지 마라. 사소한 것에 목적을 상실하는 자는 절대 대업을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즉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의 마음이 있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이란 질적 향상의

퍼내려면, 들어간 것이 있어야 한다. 공부하고 다방면의 책을 보라. 사람은 자고로 보고 배운 것 이상 생각할 수 없다. 여덟 번째, 서운함을 버려라. 왜 서운한 줄 아는가? 그것은 뭔가 바라기 때문이다. 서운함이 드는 순간부터 병나게 되어 있다. 아예 성도들에게 바라지 말라. 아홉 번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교회 내에서는 학벌이나 미모, 가문이 중요시되면 안 된다. 야성을 잃지 않은 호랑이 같은 자, 즉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열 번째, 바둑 인생을 살아라. 장기인생은 다 따먹고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빼고 저래서 안 쓰면 교회에 누가 남겠는가. 바둑판에 바둑이 잔뜩 있듯 교회는 죽은 자도 살려 쓰고, 단점 가진 자도 살려 써야 한다. 열한 번째, 목회에 성공하려면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겨라. 왜? 사랑하면 오해가 없기 때문이다. 열두 번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인격의 척도다. 절대

슨 사연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라. 성도들을 다그치지 말고 이해하라는 뜻이다. 정리해온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전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교회의 발전과 아울러 여러분 자신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은 ‘예수중심교단 산하의 모든 교역자들이 영적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려면 위의 말씀들을 행함으로 나를 경영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다. 또한 목사님은 ‘가마를 안전하게 타려면 가마꾼의 소중함을 알아 잘 대접해야 한다’ 하시고 매 식사 때마다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배움은 실천이다. 예수중심교단의 목회자들이 배움을 실천할 때 그 앞에 2019년은 무를 꿰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자 신묘수 전도사
jesus7857@gmail.com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1~7)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엄마 아빠의 기쁨일뿐더러 온 집안의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자식 키워보셨지요? 솔직히 자식이 기쁨만 줬을까?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지만 기쁨보다는 속을 썩인 것이 더 많았고, 근심과 걱정을 안겨드린 적이 더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근심덩어리요, 걱정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셔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번성케 하셨지만 여전히 지지리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뽑아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여전히 내 자식이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하고 부모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지지리도 속 썩이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람 든 무는 맛없어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시고 보듬어주십니다. 또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을 늘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일흔 번에 일곱 번씩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개, 돼지처럼 토한 것 도로 먹고, 찢겨놓아도 더러운 자리에 도로 눕는 일을 반복하길 원하실까요? 언제나 가난하여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며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허구한 날 죄를 지어 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매일 돌봐줘야 하고, 매일 불쌍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의롭게 살아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

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쁜 산에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인고”(사 5:1~4). 농부가 포도를 심었는데 시디신 들포도가 열린다면 얼마나 실망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

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이뇨”(렘2:21). 하나님은 우리

가 최상급의 극상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극상품 목사, 극상품 전도사, 극상품 장로와 권사, 극상품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남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님 믿지, 주일 꼬박꼬박 지키지, 철야예배도 다니지, 십일조 잘 드리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 정도를 극상품 포도라 칭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는 자기만족이지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자는 마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로 천국에 꼭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불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단계까지 오라고 하

십니다. 이는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낮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요14:12).

또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3~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

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4~7절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14절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쫓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며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초신자 신앙 그대로고, 생활도 그대로로 여전히 쟁쟁해야 하고, 여전히 쫓이나 먹는 신앙이라면 걱정 중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자라고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야 정상이거늘, 덩치는 큰데 여전히 쫓이나 먹고 있다면 자식인지라 사랑은 하지만 걱정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지요? 나무가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위해 존재하지만, 나무가 성장하면 나무가 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세월이 가면 신앙이 자라 교회에 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장과 발전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13:11).

성장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점 없고 흠 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벧후3:14, 엡 5:27). 죄를 짓고 회개하면 사함은 받으나 흠터는 남습니다. 죄는 용서받으나 이리저리 대가를 치르게 됨으로 흠터를 남기게 됩니다. 결혼하는 신부가 여기저기 흠터가 있으면 신랑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점 없고 흠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신랑이 ‘아름답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나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용서하십니다. 연약하여 늘 비실비실 거리면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마6:9). 그러므로 강건하고, 세상의 본이 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많은 자들을 인도하며, 의롭게 정의롭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인고” 하고 탄식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읍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슥3:17).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순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

게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지...

생각해보면 조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것을 잃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구영신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매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결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영혼을 위해 죽어야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데 조금해서 실수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조급이 죄’라는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더니 이제야 이 말씀을 통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의 남미 선교사역이 벌써 20년에 접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하며 새해를 보내려 합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차분하게 생각하고 기를 준비하면서 선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너무 조급했지요. 여유가 없었지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지요. 그게 다 조급한 생각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차분히, 여유 있게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준다는 마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마 하는 마음,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 대주지 하는 넉넉한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매사 예수님처럼 통 크고, 여유 있고, 희생하는 자세라면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매사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면서 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중심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스페인어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



지난 2018년에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자’는 슬로건을 선포하시고,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자’는 주제

로 설교하셨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관계의 역사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잃는 자는 지혜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송구영신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이초석 목사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 현장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시며 다시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첫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주셨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길을 선택했다. 사람은 선택하며 살아간다. 내가 선택한 길 외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무언가 선택할 때 부모, 선배, 주변사람의 권유를 받게 된다. 때론 책, 마스크를 통해서도 선택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결국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방향타가 없으니 방향하게 된다.

우리 교단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부탁했는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 우리교단 주 애창곡인 ‘나는 가리라’의 가사처럼. 목사님은 세계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다. 어떡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신다. 그러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다. 이 교단에 소속된 성도라면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흔적을 다시 살려내면 된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고, 목사님도 본이 되고 계신다. 모방하면 된다. 배움은 실천이고, 결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우리 전부는 하나님으로부터 2019년이란 축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받았다. 나에게 내일은 능력 밖이지만, 선물로 주어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예수님이라

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늘 생명이 있다. 살게 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를 본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반드시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드니 예수중심교회
문정훈 목사

2019년은 고난을 품어 행복을 만들어갑시다



서울 올림픽 공원집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 내 영혼을 깨웠

습니다.

강화도에 유배 간 강화도령처럼 처음 마산에서의 삶은 가도가도 끝이 없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부흥을 일으키라 꿈꾸었지만,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니 환경을 지배해야하는 사역에 어느덧 안 된다는 생각과 타성에 젖어 눌러있길 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저와 마산교회를 보다 못해 건물주 공동명의자 한 명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 건물을 매각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12월 28일까지 교회가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도 받기 힘든 상황까지 몰아치니 놀라고 눈앞이 캄캄했지요. 급하게 부동산을 알아봤지만 가진 돈으로는 교회 자리는 얻기 힘들다는 조소 섞인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낮에는 교회 자리를 찾고, 밤과 새벽에 울부짖는 것 외에는 없었지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재물을 땅에 쌓아 놓지 말고 하나님께 심으라’고 이 기회에 강하게 설교하라 조언했지만, 땅에 쌓은 분은 없고 빛에 눌러있는 분도 더러 있는 마산교회인지라 그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기도요. 긍정적인 말 한 마디입니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휴지로도 감당이 안 되어 수건을 얼굴에 감싸고 울부짖는 새벽기도 후에 어느 성도님이 저와 아내가 이사하는 꿈을 꾸었다며 300만원을 보내왔지만, 공과금 등 필요한 것들에 쓰고 보니 남은 게 없어 또 새벽에 울고 몸부림치니 다시 채워지

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없기에 성도들에게 인테리어가 다 된 곳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녹아내리는 듯 힘들었습니다. 날씨는 다가와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어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찾아뵈려 했는데, 목사님께서 조금하지 말고 더 알아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고 하루 미루고 찾으려 할 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기대하지 않고 가보았는데 기도하던 그대로 모든 것이 거의 다 꾸며져 있고, 복사기며 책상 등 세세한 것까지 다 준비된 곳이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와 권면, 박인덕 목사님과 경남노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12월 25일 성탄절에 마산교회는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새생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

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6:10~13).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난에 눌러 기도조차 안 나오십니까? 찬양 틀어 놓으시고 수건에 얼굴 파묻고 울어보세요. 반드시 연약한 종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2019년, 고난에 눌린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산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 일본에서 온 메시지 ::

:: 신앙에세이 ::

장갑과 손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새벽기도 때는 손을 비벼가며 기도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도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갑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장갑은 장갑을 낀 채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손가락 부분이 특수한 기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성도님께 감사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해봤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마치 장갑을 끼지 않은 듯한 터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느끼며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할 정도의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습니

다. 그냥 둔 장갑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벗어놓은 장갑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갑을 누가 끼느냐에 따라 의사의 손이 되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움직이는 조종사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벗어놓은 장갑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벗어놓은 장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끼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욥 17:9).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아담의 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의 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어 기도로 승리한 모세의 손, 그리고 은 30에 스승을 판 가롯

유다의 손,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의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손, 치료와 섬김의 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나의 손은 어떤 손인지요?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벗어놓은 장갑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참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무릎 꿇고 하늘 우러러, “주님, 벗어놓은 장갑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깨끗한 손, 사랑의 손, 주님의 손을 닮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신년사 ::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



할렐루야! 지난 2018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초석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2019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더욱 더 건강하셔서 많은 지교회와 선교지, 성도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또 제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서우에 성전을 허락해주시는 것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 기도의 땅, 찬양의 땅, 응답의 땅, 전도의 땅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길 원합니다. 2019년에는 저와 형제들이 함께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와 형제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교회 장애인선교회와 농아선교회가 있음을 알립니다. 장애인선교회는 유명숙 전도사가, 농아선교회는 주축복 전도사가 맡고 있습니다. 두

선교회는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장애우를 섬기며, 작업장을 통해 장애우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린은 우리 교회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기도와 자원봉사,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몇 번 대접해봤느냐?’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교회를 섬기며 형제들을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예수중심교회가 더욱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서울예수중심교회 연상섭 장로

예수중심교회가 35살이 되었습니다



옛그제 송구영신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1년이 또 빠르게 지나갔네요. 올해는 목사님 성역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986년 마가다락방에서 목사님을 처음 뵈고 내가 찾던 이 시대의 주의 종이라는 믿음과 꿈의 계시, 방언통변의 응답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 성가대장으로 시작하여 장로의 직분으로 일하지만 늘 부족하고 죄

송스런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34년이 지나면서 이제 더 크고 알찬 열매 맺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 결혼, 생일, 환갑, 칠순, 팔순, 회사 창립기념 등... 성경은 우리에게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출 13:3). 우리에게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 날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중심교회를 만난 날, 장로직분을 받은 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집 가까이에 크고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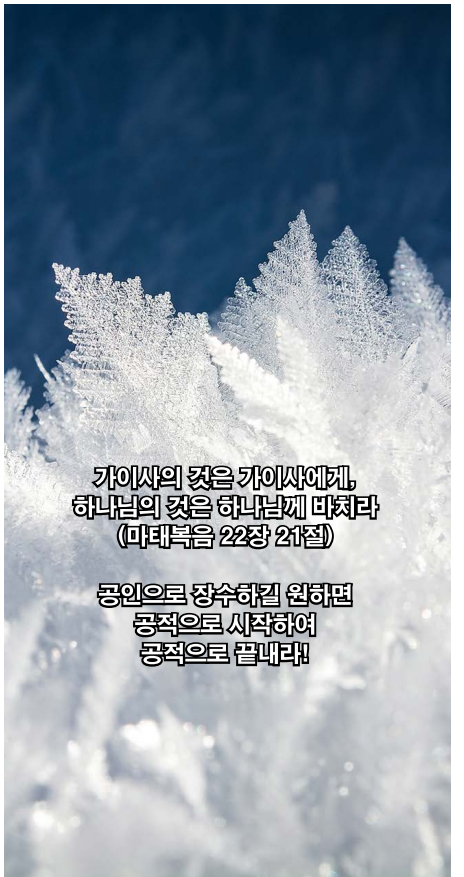
름다운 도토리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자자체인 시로부터 보호수로 지정되어 허락 없이 베어낼 수가 없을뿐더러 많은 자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중심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 이제 35년 청장년으로의 예수중심교단, 예수중심교회는 거목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서 인정받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요, 갑절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9년, 예수중심교회의 주의 종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이동희 장로

세상사 뿌린 대로

살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든 세상사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사회생활 초창기에 회사와 내 개인의 삶에 굶은 선을 그으며 내 책임은 근무시간에만 유효하다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 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나의 이런 태도와 생각을 두고, ‘왜 세상에서, 직장에서의 일을 자로 재듯 선을 굶느냐?’라는 조언을 들었다. 점차 생각을 바꾸고 일하다 보니 회사의 대우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잠27:19)는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보고 활짝 웃으면 그 사람도 내게 미소를 짓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도 덩달아 화를 낸다.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면 사랑의 보답이 온다. 종종 사람들이 내게 영어 잘하는 방법을 묻는다. 그럼 나의 대답은 늘 똑같다. 관심 분야에 영어로 된 책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는 귀찮아도 모두 사전을 찾고, 단순히 그 단어 뜻뿐만 아니라 함께 나온 예문과 속어를 모두 보고, 그 책을 여러 번 정독하라고 답한다. 또한 발음 기호도 숙지하여 소리 내어 읽으라고도 한다. 그러면 처음엔 사전 찾으며 읽는데 한 장에 1시간 걸리던 것이 점점 줄어들며 사전 없이도 읽을 수 있게 된다. 다들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기대하지만 영어 실력도 경험상 내가 공부한 만큼 는다. 뿌렸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이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기다림과 인내 또한 필요하다.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사 모두 뿌린 대로 거둔다.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가이사의 컷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컷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

공인으로 장수하길 원하면
공적으로 시작하여
공적으로 끝내라!